더불어민주당	보 도 자 료	2026. 10. 28 (수) 즉시 배포 가능
		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문의 : 02)2630-0037

더불어민주당,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보통신망법위반(명예훼손) 등 혐의로 고발

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28일(수), 주진우 국회의원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김혜경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 주진우 의원을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(명예훼손) 및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.

주진우 의원은 2026년 10월 26일(월),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「김혜경의 프로골퍼 대동한 황제 레슨, 이 정권 골프로 끝날 것」이라는 제목으로 김혜경 여사의 골프장 이용 관련 게시글과 영상을 올렸습니다. 주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김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여 황제 골프를 즐겼고, 세계적인 프로골퍼로부터 레슨을 받았으며, 그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습니다. 나아가 대통령 전용 황제 클럽하우스를 이용했다는 주장과 함께 “이재명 가족의 군 시설 사적 이용은 범죄”라고 주장했습니다.

특히 주진우 의원은 게시한 영상에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라운딩하는 여성 골퍼의 장면에 세계적인 프로골퍼 리디아 고(Lydia Ko)의 경기 사진을 삽입하여, 마치 리디아 고가 김 여사와 함께 골프를 치고 레슨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. 또한 같은 날 문화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김 여사와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이 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 투어에서 활동 중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관련 의혹이 보도되도록 했습니다.

그러나 주진우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당사자의 직접적인 반박으로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. 당사자인 리디아 고 본인이 당일 즉각 입장문을 통해 김혜경 여사와 골프를 함께 친 사실이 없으며 전혀 무관하다고 명백히 밝혔고, 해당 시간대에 완전히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. 그럼에도 주진우 의원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

않은 채 세계적인 프로골퍼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하여 고액의 레슨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.

나아가 '대통령 전용 황제 클럽하우스'라는 시설은 태릉CC에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으며, 민간인의 이용이 원천 금지되지 않는 군 운영 시설인 태릉CC 사용을 두고 '이재명 가족의 군 시설 사적 이용은 범죄'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.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까지 지낸 주진우 의원이 위와 같은 시설의 운영 실태를 모를 리 없음에도, 오로지 대통령 가족을 흠집 내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남발한 것입니다.

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허위 주장이 리디아 고의 반박으로 거짓임이 드러나자 페이스북 영상을 슬쩍 편집해 지우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보였으면서도, 이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와 기자회견 백브리핑 등에서 "제보받은 대로 전파한 것뿐"이라며 적반하장격으로 허위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. 이는 정당한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, 면책특권조차 적용될 수 없는 악의적 비방에 불과합니다.

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의원은 "주진우 의원의 이번 주장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무책임한 흑색선전이자 악의적인 가짜뉴스"임을 지적하며 "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,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해 줄 것"을 촉구했습니다. <끝>